



'방글방글' 대한민국 미래가 보입니다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 전개되면서 총선 막바지까지 대한민국 곳곳이 부산스럽습니다.

지난 3일 부재자 투표소가 마련된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초등초등 한 눈빛의 참관인을 만났습니다. 투표 참관인 엄마를 따라 나온 갓난아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기는 뭐가 그리 신이 난지 방글방글 웃음을 지으며 부재자 투표를 하는 국군 장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지한 참관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기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투표를 지켜보며 의젓하게 참관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훈탁한 총선 정국과는 달리, 이날 미래의 유권자인 아기가 자리 잡고 않은 부재자 투표소는 고요하면서도 희망적인 분위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제 곧 국민을 대표할 인물들이 확정됩니다. 폐자와 승자가 엇갈리겠지만 정정당당한 승부로 총선이 무사히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소에서 만난 아기가 늘 헤맑은 눈빛으로 웃을 수 있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 총선 승자들에게 국민의 대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할머니와 의사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간 할머니가 한참을 돌아다니느라 피곤해서 의사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다.

“할머니! 이 의사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입니다. 앉으시면 안돼요.”

그래도 할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앉아 있자 경비원은 다시 한번 김구 선생의 의자아니니 비켜달라고 부탁했다.

경비원의 말을 듣던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며 한마디 했다.

“아, 이 양반아! 주인 오면 비켜주면 될 거 아니!”

▲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

어느 장학사가 학교 시찰을 나갔는데 마침 지구본을 놓고 과학 수업을 하는 교실이 눈에 띄었다. 장학사는 학생들의 실력도 알아 볼겸 학생들에게 물었다.

“반장,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뭐지?”

반장이 깜짝 놀라서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저희가 안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진 장학사가 선생님에게 물어 선생님이 별일 아니라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장학사가 지구본을 들고 교장실로 갔다.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기울어진 이유를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러자 교장이 안타깝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쯧쯧... 국산이 그럴죠, 뭐.”

▲ 건강증

건강증이 심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건강증 때문에 물건을 잊어버리기 일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지자 남자가 결국 병원을 찾았다.

남자 : 제가 건강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의사 : 어느 정도로 심하시나요?

남자 : 뭐가요?

▲ 유언

목사가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병원에 갔다. 가족들과 함께 환자의 곁에 선 목사가 물었다.

“제가 환자의 곁에 선 목사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그러자 환자가 고운 표정으로 힘을 다해 손을 내저었다. 목사는 말하기 힘들면 글로 써 보라며 펜과 종이를 주었다.

그러나 환자는 힘들게 글을 몇 차 쓰다 숨을 거두었다. 목사는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환자의 유언을 읽어주었다.

“발 치워, 당신이 호흡기 밟았어!”

▲ 엄마와 아들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깨웠다.

엄마 : 애야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아들 : 싫어요. 저 학교 가기 싫단 말이에요.

엄마 : 그럼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를 두 가지만 대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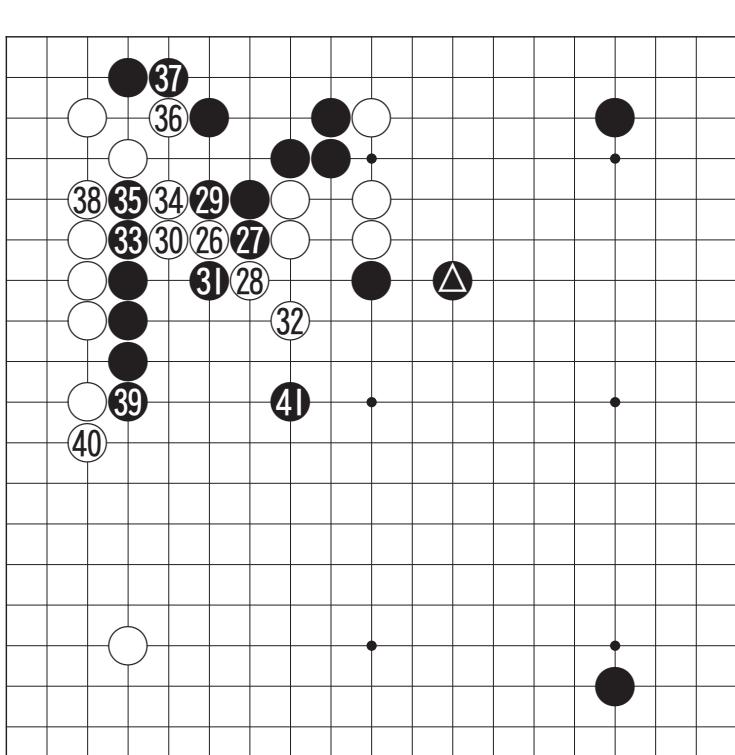
아들 : 아이들이 다 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싫어하단 말이에요.

엄마 : 그건 이유가 안된다. 어서 일어나거라.

아들 : 그럼 제가 학교에 가야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해보세요.

그러자 엄마가 한 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 : 좋아. 넌 지금 57살이고, 그 학교 교장이잖니.



기우회 대항전

기세에서 밀린 후퇴 3보(26~41)

白 기용성 5단 (오호회) 黑 김희관 5단 (무석회)

흑 ▲로 당연하며 백 36까지는 서로가 한 칸 둔 수는 공 도 둘러서지 않고 마주보고 달리는 격을 위해 열차처럼 대충돌을 벌이고 있다. 서는 절대 백 36 때 김희관 5단 장고 끝에 흑 37로 둘러서고 말았는데 이제까지의 필요한 수로 포석도 없이 중반 전투에 돌입하고 있으면서 본다면 이 수로는 무조건 '참고'의 흑 1로 뛰어야 했으며 김희관 5단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교환을 했을 것이다.

그리면 5까지가 필연인데 다음 '가'와 '나'의 뛰는 수 등이 남아 흑이 둘만하다. 김 5단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변해 흑 37로 넘고 말았는데 기세에서 밀린 느낌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참고도)

백 26이 두대국자의 기세를 보여주는 강렬한 차단이다. 이 수로는 32에 한칸 뛰면 무난한데 상대의 공세에 지지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되면 흑도 31로 뛰는 것은

바둑소식

오규철 9단, 왕중왕전 출격

본보 바둑 해설위원인 오규철 9단이 제5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1회전에서 무진석 9단과 진검승부를 벌인다.

한국기원은 7일 백호, 청룡, 현무, 주작 리그별 경기를 통해 선별된 32명의 기세를 생각하면 다소 의외였다. 기세로 본다면 이 수로는 무조건 '참고'의 흑 1로 뛰어야 했으며 김희관 5단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교환을 했을 것이다.

그리면 5까지가 필연인데 다음 '가'와 '나'의 뛰는 수 등이 남아 흑이 둘만하다. 김 5단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변해 흑 37로 넘고 말았는데 기세에서 밀린 느낌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8일(음 3월 3일 戊寅)



36년丙子생 주변의 식습이 줄어들 수 있다. 48년戊子생 서둘러 말하고 60년庚子생 서둘르면 되는 일도 망친다. 72년壬子생 숨을 돌리고 물려보라. 84년甲子생 이죽은 빠르니 한 번 더 생각하고 행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03.39



37년丁丑생 세 일이 불편하나 갑사로 연결된다. 49년己丑생 앞 일이 걱정되나 허사는 없다. 61년庚丑생 물건을 조심하면 실물을 없으리라. 73년癸丑생 시기상조이나 걱정은 말라. 85년乙丑생 운을 더 옮겨들과 관계를 유지하라.

행운의 숫자 : 10.33



38년己寅생 앞 태어나거나 서로다른 일로 부딪힐 수 있다. 60년庚寅생 친친을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드려라. 62년壬寅생 주변과 관계를 맺고 운을 개선해 보라. 74년甲寅생 득보다는 실이 크니 인내하여 화해하라. 실마리를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25



39년己卯생 미루리를 잘하면 어부지리 할 수로다. 51년辛卯생 일이 어려워나 신중하게 실리를 추구해야 하리로다. 63년癸卯생 시기상조이나 충분한 자기 사람을 확보해야. 65년壬辰생 우연한 좋은 기회를 포착하여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4.25



40년庚辰생 전장을 하지 말고 평화로 해결하라. 52년壬辰생 새로운 기회가 오니 경계망하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64년甲辰생 규모를 축소하여 현실에 만족하라. 76년壬辰생 희망의 설계가 성공되니 준비하여 기다리라.

행운의 숫자 : 05.37



41년辛巳생 적절한 미루리를 모든 일이 순종하니 실리에 집중하라. 53년壬午생 황제를 기대하니 노력으로 이루어라. 65년乙巳생 생기가 발산하고 예정으로 새로운 일이 생성된다. 77년丁巳생 신생으로 만남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2.39



43년癸未생 낭설이 많을 수 있다. 55년壬未생 중인들이 서로도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리라. 67년丁未생 집안이 소란하니 침착하게 수습하라. 79년己未생 남의 일을 조심하고 구설수를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4.26



44년庚申생 외향을 줄이고 실리로 바꾸어리. 56년壬申생 기회를 염두에 두고 계획이 성립되나 진행까지는 조기상조. 68년己未생 생과 파죽이 금물이고 동업은 불화가 된다. 80년庚未생 혼자 사는 여자에게 기회가 온다.

행운의 숫자 : 23.27



45년乙酉생 길사는 적으나 하는 일에 집중하라. 57년丁酉생 원한 뺏은 미운사람 용서를 해버려라. 적군이 품에 든다. 69년己酉생 생과 마지막 속임수를 조심하고 변동하는 미라. 81년辛酉생 자기 일을 뒤집어놓고 짐겁해야 하리로다.

행운의 숫자 : 12.33



46년丙戌생 곤고통은 없다. 58년戊戌생 희망적 설계는 있으나 금진하고 있는 것이 좋다. 70년庚戌생 이면에 불씨가 있으니 확하게 통해라. 82년壬戌생 이는 길도 둘어 가고 믿는 이도 살펴보라. 주변이 불안하다.

행운의 숫자 : 21.30



47년壬亥생 산뜻한 새 맛으로 상쾌한 하루로다. 59년己亥생 잘 대신구사업에 참여자 말고 실리를 짐呣하라. 71년辛亥생 옛 인연을 끊고 머리를 바꾸니 좋다. 83년癸亥생 젊은 자식은 들통하니 다행한 하루로다.

행운의 숫자 : 08.25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뱃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34>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V?

저 텔레비전은 어때요?

A : Can I help you?

B : Yes, I'm trying to figure out which TV to buy.

A : Well, what do you think about that TV?

B : I like it.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more about it?

A : 도와드릴까요?

B : 네, 저는 지금 어떤 텔레비전을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A : 음, 저 텔레비전은 어때요?

B : 맘에 들어요. 그 물건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 그 사람이 한 제안, 어때요?

= What do you think of his proposal?